

나주축협 문어발 확장에 농민들 '피멍'

오리훈제 · 대형마트 이어 비료사업까지
뛰어들어 주민 반발

나주축협이 지역민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 영업 확장에만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리훈제 가공공장에서 대형마트, 비료사업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유사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일 나주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오리훈제 가공공장이 최근 훈제오리에 대한 소비가 줄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리 사육농가들의 출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축협 측은 타 지역에서 싼 가격에 오리를 반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당시 조합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와 관련 직원들이 배당금까지 나눠가졌으며, 이에 대한 말썽이 일자 다시 돌려주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후 경영상손실에 대해서는 손해의 10%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협은 이 밖에도 주변상가와 재래시장 측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체 대형마트를 개장했다. 이로 인해 시장과 영세슈퍼마켓의 매상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신 축협 측은 하루 4,000여 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비료사업에까지 뛰어들면서 지역업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 역시 같은 비료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영세민간업체보다 자금력이 뛰어난 축협의 신규사업 진출을 측면지원해 현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 중인 업체와 영세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축협관계자는 "오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줄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이를 해소하기위해 과잉생산을 줄이고 있고 매장에 진열돼 있는 수입 산들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친환경비료공장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관련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일보 정철현 기자 2013. 04. 02

무허가 도축 닭 · 오리 2000여 마리 유통한 업주 벌미

대전 대덕경찰서는 4월 2일 작업장 등 도축시설을 무허가로 차려 놓고 닭과 오리 등을 유통한 A(59)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간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무허가 작업시설을 차리고 2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마리당 8000원에 닭 등을 사들여 하루에 10여 마리씩 도축하고 이를 1만 2000원에서 1만4000원에 시중에 유통, 25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 9월 이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단속을 받고 입건됐으나 이후 위생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또 도축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홍성후 기자 2013. 04. 02

청원군, 축산농가 자동소독기 지원

충북 청원군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자동소독기 지원 사업을 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청원군은 군내 가축사육농가 중 한·육우 8농가, 젓소 3농가, 돼지 5농가, 오리 5농가, 육계 1농가 등에 자동소독기 22대를 지원한다. 소독기 구입비용 400만원 중 절반은 군에서 보조한다. 군 관계자는 “농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자동소독기는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방역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박재원 기자 2013. 04. 03

제주도, AI 국가격리병동 본격 가동

중국에서 H7N9형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로 6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6일 AI 인체감염 환자 유입에 대비해 제주공항 발열 감시시스템을 가동,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시, 검역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 차원에서 이날 1단계로 국가격리병동(제주대학교병원) 가동준비에 들어갔으며, 실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병원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심환자를 신속히 발견, 치료하기 위해 도내 전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국가격리병동은 2011년 5월4일 제주대학교병원에 국비 9억9800만원(국비)을 들여 24병상(음압병

상 4병상, 격리병상 20병상)을 갖췄다. 또한 거점 병원인 한라병원 격리 외래진료시설도 가동한다. 이 병원에는 격리외래진료실 2실, 중환자 치료병상 3병상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중국 등을 여행할 경우 조류시장 또는 가금류 농장 방문을 피하고, 외출 후 손씻기 등 인체감염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제주 양두석 기자 2013. 04. 06

국토부, 건축법 위반 축산 농가 구제

건축법을 위반한 축산 농가들이 대거 구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과 축사 안 가설건축물 용도와 재질 확대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과 축사안 가설건축물 재질로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가 허용되고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구제될 전망이다.

또 기업 활동 지원 차원에서 6월까지 한시 허용했던 공장 옥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설치와 대지 공지 기준 완화 적용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은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설계비용이 3.3㎡당 1만원 감소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스 이재우 기자 2013. 04. 07

전남도농업기술원, 사향오리 소득화 사육기술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민수)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틈새가축인 사향오리(머스코비)의 소득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월 9일 밝혔다.

기술원은 최근 사향오리 알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 계란과 면역에 관계되는 글루탐산과 피부 보습에 좋은 세린함량 등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됐다는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향오리는 봄에서 가을까지 산란하고 보통 연간 120~1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성숙된 체중은 암컷 2.5~3.4kg, 수컷 4.5~6.3kg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나주, 함평 등 일부 농장에서 약 5000수를 사육 중에 있다.

사향오리고기는 떡갈비, 전골, 수육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 가능하며 풀 사료, 농산 부산물 등 위주로 사육이 가능하다. 야생성이 남아있어 질병과 추위에 강해 별도의 사양관리 기술이 없는 초보자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축종이다.

특히 사향오리 알은 일반 계란에 비해 백혈구 활동 증진 및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글루탐산이 58% 이상 높고 철 82%, 비타민A 78%, 비타민E 42%, 칼

슘 30%이상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돼 영양학적 가치가 높아 알가공품으로 개발 시 향후 소비 전망이 밝고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호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은 “사료비 절감 등 최적의 사양프로그램 및 가공품 개발 등 실용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농가보급을 위해 산육능력이 뛰어난 종자 기초군을 100수 규모로 확보해 내년부터 우선 강진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한 이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전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1 김한식 기자 2013. 04. 09

부산 만덕 민속오리불고기 축제 개최

부산 북구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만덕1터널 부근에 위치한 만덕민속오리마을에서 ‘제3회 만덕 민속오리불고기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음식문화개선 실천 결의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오리불고기 할인판매 무료시식회 저나트륨 오리요리경연대회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축제의 시작인 4월 13일에는 만덕 1동 상학초등학교에서 병풍사를 거쳐 행사장까지 걷는 걷기대회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걸으면서 좋은 식단 실천캠페인을 펼쳤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참가자에게는 오리불고기 무료시식 기회도 제공되었다.

저나트륨 오리요리경연대회는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를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50% 할인

된 가격으로 오리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할인판매 행사도 진행되었다.

아울러 행사장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가수 박진도 (유리벽 사랑)의 공연과 주민노래자랑 및 댄스 경연 대회 등이 이어졌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천혜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오리마을 불고기 축제는 웰빙산책로와 초록누리길 등 숲길 걷기대회와 연계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축제 활성화를 통해 향토음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축제위원회에 당부했다.

한편 만덕민속오리마을은 지난해 1월부터 환경 노후화 디자인개선사업 발주를 통해 오리캐릭터와 종합안내도 각종 안내판 오리의 곡선을 살린 업소 간판 교체 야간 조명 설치 등을 추진해 지난 10월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2월부터는 만덕민속오리마을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향토음식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 04. 09

비닐하우스서 오리 2만마리 무허가 가공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비위생적으로 오리를 가공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가공된 오리고기 수만 마리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 일원 전문점에서 조리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4월 10일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위생적으로 가공한 오리를 부산과 김해 등 오리전문점에 넘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정모(3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립형 컨테이너 건물에서 오리를 가공해 부산지역에 유통한 박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강서구 대저동 비닐하우스에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부산과 김해 등 오리전문점 20여 곳에 통오리훈제구이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오리고기 2만 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남 하동과 전남 담양 등 도축장에서 가져온 오리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토치랩프로 잔털을 제거하고 주방용 식칼로 비계를 손질하는 등 가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등 무허가 작업장에서 다지거나 굽기 좋은 크기로 썰는 소분작업을 벌인 오리 5만 마리를 기장군과 강서구 강동동 등 오리전문점 6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5개 업체가 위생복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면서 정기적인 위생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들 업체가 가공을 끝낸 오리고기를 상온에서 보관했고 냉동차 대신 승용차로 운반한 탓에 세균에 감염된 고기도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오리의 유통기간이 7~10일이지만 가공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유통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업소가 폐쇄되거나 정식허가 후 지속적인 위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기관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제신문 김화영 기자 2013. 04. 10

농림부 장관 “농산물 가격 개입 자제”

무분별 수입으로 조절 안기로...가격안정대 논의 방침
정부가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물가에 개입하지 않고 폭등 또는 폭락하는 경우에만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월 9일 국민 농업포럼이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향후 농정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필 장관은 “일정한 가격안정대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자”며 “예를 들어 평균가의 $\pm 30\%$ 정도는 농산물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정상적인 가격 상태로 인정받아 시장에 맡기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 위원회를 운영해 이런 부분을 결정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농정방향은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업농은 조직화·규모화·계열화와 경영안정 방향으로 정책을 접목한다. 중소농은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고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영세·고령농의 경우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 농지연금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장관은 “영세·고령농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와 농업회의소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13.04.11

시 여파 중국 기업도 시름 KFC·베이징 오리구이 전문점 직격탄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H7N9)의 여파로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당장 불똥이 튼 분야는 가금류를 취급하는 기업들이다.

치킨프랜차이즈 KFC의 모기업 엠 브랜드는 지난 4월 10일 발표한 공시를 통해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한 여론이 지난주 중국 KFC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출 피해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후 이 기업의 주가는 한때 9% 가까이 폭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베이징 카오야’(오리구이)로 잘 알려진 베이징 중심가 첸먼의 ‘취안취더’ 요리점도 손님들의 발길이 뜰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의 유명 음식점인 ‘샤오난궈’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하이 인근 장쑤산 닭고기 대신 광둥성 산(産)으로 바꿨다.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도 최근 생고기 거래를 중단했다.

반면 조류 인플루엔자로 반사이익을 보는 업체도 등장했다. 최근 장쑤성 위생청이 사스 예방약으로 소문난 반람군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

다고 언급하면서 상하이와 난징에서는 반람근이 품절되기도 했다.

한국경제 박병중 기자 2013. 04. 12

그린벨트서 오리-닭 불법도축 60대 덩미

서울 성북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오리를 불법 도축하고 판매한 윤모(6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비닐하우스와 조립식 건물 등을 설치한 후 불법 도축한 오리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오리와 닭 등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도축한 후 내장 등 부산물은 그린벨트 지역에 매립하거나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홍세희 기자 2013. 04. 17

닭 · 오리 3만 마리 불법도축 · 유통

야산에 대규모 불법 농장 · 도축장을 차려놓고 닭과 오리 약 3만 마리를 도축해 판 업자와 이를 사들인 식당주인들이 붙잡혔다.

도축업자는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에 도축장을 운영하며 신선도를 증명하려고 손님들 앞에서 직접

도축을 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야산에 불법으로 농장과 도축장을 차려놓고 도축한 오리와 닭(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을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관리법)로 도축업자 김 모(50 · 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 씨로부터 구입한 닭과 오리를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 혐의(식품위생법)로 식당 업주 신 모(42)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야산 중턱 약 3천300㎡ 부지에 농장과 도축장을 마련하고 불법 도축을 한 혐의다. 경찰은 김 씨가 마리당 약 1만2천 원을 주고 부산 해운대, 기장, 온천동과 양산 등 4개 식당과 인근 주민들에게 팔아 약 3억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가축을 도축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도축한 닭 10 마리를 씻어 비닐 2장에 포장해 손님에게 건네는 데 10여 분도 걸리지 않았다.

도축장은 제대로 된 위생 · 방혈 시설이 없어서 피와 잔여물이 방치돼 있었다. 농장에도 분뇨 및 정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부산일보 김현아 기자 2013. 04. 18

역경 이겨낸 성공농업인 전북 남원 장영두씨 오리 · 벼 등 복합영농 ‘우뚝’

“비닐하우스 한편에서 다섯 가족이 추운 겨울을 넘겨야만 했던 흑독했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리 사육과 감자 · 벼농사 등 복합영농을 통해 연



간 1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장영두씨(47·전북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장씨는 1986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무일푼으로 1만3200㎡의 논을 임차하면서 농사에 뛰어들었다. 임대료

가 싼 논을 찾다 보니 남들이 꺼려 하는 산골짜기 다랑논은 언제나 그의 차지였다.

그가 시설하우스 농사로 눈을 돌린 것은 1998년. 3300㎡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방울토마토를 생산했다. 해발 500m 고랭지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는 품질이 우수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한때 지역 내에서 ‘잘나가는 농업인’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2002년 불어닥친 태풍 ‘루사’는 장씨의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갔다. 수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비닐하우스는 태풍으로 산산조각났고, 흙탕물로 뒤덮인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장씨는 파프리카와 상추를 비롯한 각종 원예농산물 생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계속된 시설 투자로 빚이 는 데다 보증 문제가 얽히고설키면서 부채가 3억원이 넘었고, 급기야 개인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늪에서 다시 오뎅이처럼 일어섰다. 동료 농업인의 도움으로 하우스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해 아내와 둘이서 손수 하우스를 재건했다. 농작물을 키울 수 없었던 하우스에서는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장씨는 오리 사육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리를 출하하면서 수중에 자금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오리 사육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감자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퇴비로 사용하면서 생산비를 크게 줄여 소득을 높였다.

장씨는 “원예작물을 생산할 때는 하루 종일 하우스에서 살아야 했지만 오리를 사육하면서부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논과 밭 5만2800㎡를 임차해 밤낮으로 농사에 매달렸고, 시간이 나면 낱품을 파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그의 부채는 이제 1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장씨는 “오리를 키우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심신이 힘들었던 시절에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됐다”며 “오리농장을 인적이 뜸한 곳으로 옮기고, 사육규모도 현재 1만9000마리에서 3만마리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게로 모판을 날라가며 힘든 농사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장씨는 “지금도 절망에 빠진 농가들이 많겠지만,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행동에 옮기면 언젠가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농민신문 양승선 기자 2013. 04. 22

‘좋은아침’ 김의신 박사, “암 예방에 국내산 오리고기”

세계적인 암 전문가이자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 김의신 박사가 암을 예방하는 기적의 밥상으로



로 오리고기를 추천했다. 김의신 박사는 4월 23일 SBS <좋은아침>에 출연해 암 예방에 좋은 밥상으로 현미밥과 오리고기를 소개했다. 암치료로 인해 기력이 쇠한 환자가 오

리고기를 섭취하고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김의신 박사에 따르면 국내산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타 육류에 보다 유해한 기름이 적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김 박사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육류에는 독소 배출에 효과가 있지만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수 있다”면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지녔으면서 황사철 독소 배출에도 효능이 있는 오리고기를 먹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오리협회는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5월 2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하고 시식 및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울공원 광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리데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2013. 04. 23

효소오리로 맛·건강 다 잡은 '오리큐'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보양 식품중 하나인 오리고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리고기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른 고기보다 월등히 많은 식품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칼슘, 인, 철, 칼륨 등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원기회복에 탁월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몸에 좋은 오리고기에 천연한방효소를 결합시킨 오리고기 전문점도 등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천연한방요리전문점 '오리큐'가 그 주인공이다. 오리큐의 모든 메뉴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일반적으로 구워놓기만 해도 씹는 식감이 부드러워 입에 살살 녹는다. 심지어 오리 특유의 잡냄새도 나지 않는다.

비결은 효소에 있다. 오리큐에서는 구지뽕, 인진썩, 황금, 당기 등 20여 종류의 국내산 천연 약재로 효소를 만들어 저온숙성 시킨 오리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명 '효소오리'로 불리는데, 약 10여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출시에 성공했다. 메뉴는 '짜글이오리' '한방숙성오리구이' '훈제오리' '오리떡갈비' '오리소세지' 등 다양하다.

이중 주물럭을 연상시키는 짜글이오리는 오리큐의 대표메뉴. 효소오리와 오리큐만의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오리큐가 맛집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오리큐는 강릉 선자령에 직접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오리고기를 선보인다.

매경닷컴 김윤경 기자 2013. 04. 22

“AI 비상인데” 고위험 축사 이전·폐쇄 미적미적

중국에서 100여 명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20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위험 축사 이전·폐쇄 정책이 2년이다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차단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축사현대화 사업도 경기침체와 융자금 부담으로 예년에 비해 신청 액수가 크게 줄었다.

4월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닭, 오리, 메추리 등 3개 축종별 소규모 이상 농가 1032곳을 대상으로 사육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52곳(82.5%)은 양호하고, 117곳(11.3%)은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한 농가는 30곳, 시급히 폐쇄해야 할 농가로 진단받은 곳도 30곳에 달했다. 조사대상 농가는 닭 556곳, 오리 470곳, 메추리 6곳으로, 규모는 닭과 메추리는 1000마리, 오리는 160마리 이상 농가다.

2011년 닭·오리 32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AI 파동을 겪은 후 실시한 1차 조사에 비해 양호 농가는 69%에서 83%로 증가했고,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23%에서 11%로 줄어든 반면 각각 38곳과 36곳에 달했던 이전 대상과 폐쇄 대상 농가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악한 환경으로 감염 우려가 높고 마을, 도로, 강, 호수 등 취약지역에 위치해 이전이나 폐쇄가 시급하지만 농가의 반발과 기피로 3년째 사육제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전 희망 농가에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 안전지대로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쉽

진 않다”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키로 돼 있어 이전·폐쇄 대상 농가들의 경우 자연스레 구조조정 될 것으로 보이지만, AI 예방과 친환경 축산을 위해 시·군과 손잡고 이전·폐쇄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전·폐쇄 권고나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책자금을 중단키로 했다.

축사현대화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00농가에 740억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240농가에 468농가만 신청했다. 농가수는 비슷하지만 신청액은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신청자수가 예상보다 적자 신청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불황이 발목을 잡았다. 보조금의 경우 농가당 최대 한육우 3억, 돼지 12억, 산란계·종오리 11억, 육용 오리 8억, 닭오리 부화장 13억 원까지 지원되고, 융자사업은 한육우 4억 원, 돼지·산란계·종오리 50억 원, 닭오리 부화장·육계·육용오리 30억 원까지 지원되지만, 불경기라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투자를 꺼려하고, 융자부담 등으로 신청액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며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고, 대신 융자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는 게 사육환경 개선은 물론 축사 이전에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시스 송창현 기자 2013. 04. 22

오송 박람회서 청원군 축산물 우수성 홍보

충북 청원군이 다음달 5월 3일 개막되는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

로 청원지역 축산물 홍보에 나선다.

지난 4월 23일 군은 박람회장 인근에 조성된 5만 368㎡의 꽃밭에서(유채, 꽃양귀비)축산물 판매와 셀프식당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판매는 청원군 축산단체가 참여해 한우와 육우, 돼지, 오리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구입한 축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먹을 수 있도록 셀프 식당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셀프식당을 맡은 오송새마을부녀회는 식당 운영을 위한 자재와 식재료 확보, 상차림(야채외 7종)및 식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겠다는 각오다.

또 이번 기회를 청원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군은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축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이재기 기자 2013. 04. 23

**음성군, 오리축사 법적제한 없어 “공식입장”
오리축사 11개동 총 연면적 4298㎡
건축 완료**

충북 음성군은 최근 원남면 하노리 부근에 조성된 오리축사 반대 민원과 관련해 적법한 행정처리였다는 공식 입장을 4월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원남면 하노리 일원 면적 7877㎡, 총 연면적 4298㎡ 규모의 오리사 11개동에 대한 건축신고가 군에 접수됐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오리축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원남면 하노리 일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축사(오리사)는 행위제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 군은 지난 2011년 10월19일자로 건축 신고를 수리했다.

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10년 반기문 UN 사무총장 생가 인근 축사에도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군이 축사 건축신고에 대해 반기문 테마공원 조성을 이유로 불가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했다고 판결해 1, 2심 모두 음성군이 패소했다.

실제 축사 운영시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예상해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불가처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원남면 하노리 오리사는 지난 4월 10일 축산폐수 배출시설 준공을 득하고, 4월 15일 오리사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득해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다.

반면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리축사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최종찬)는 지난 4월 22일 음성군청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축사 반대투쟁시위를 벌였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이날 “오리농장이 위치한 곳은 음성읍의 관문으로 현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념공원과 음성읍의 대표적 주거단지 포란재, 주공아파트, 농산물선별장이 위치한 곳이다”며 “특히

음성여중 인근에 위치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2013. 04. 25

준비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 뉴스 이보미 기자 2013. 04. 25

NS홈쇼핑 ‘우리축산물요리경연축제’

NS홈쇼핑은 지난 4월 30일 주부요리축제인 ‘우리축산물요리경연축제’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제6회 우리축산물요리경연축제’는 우리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NS홈쇼핑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하림그룹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취지에 알맞게 국내산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오리 4가지로 주재료를 한정하였고, 기존 요리대회 형식에서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야외 무료 시식코너, 한우 도체 시연, 재즈밴드,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와 달리 전문가 팀을 배제하고 주부 70팀, 학생 15팀으로 선정했다. 다문화가족과 특별 참가자를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위한 화합의 장을 도모했다.

NS홈쇼핑 도상철 대표는 “우리 축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국내 축산 농가를 응원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가정의 달 맞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식코너, 무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2일 오리데이 페스티벌 고양국제꽃박람회 한울광장서 개최

한국오리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개최하는 「2013 제11회 대한민국 오리데이 페스티벌」이 5월 2일 고양국제꽃박람회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열렸다.

한국오리협회와 농협중앙회는 ‘힐링푸드 웰빙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3년부터 5월 2일을 오리데이(5·2DAY)로 정하고 매년 오리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오리데이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 오리고기 먹는 달’로 꾸민 대형 캘린더 위에 전시된 31가지 오리요리를 볼 수 있었다.

오리요리모형과 오리의 다양한 효능을 알리는 전시존도 운영되었고, 오리관련 문화체험 행사도 있었다. 오리고기 홍보대사 위촉식과 비보이와 여성 타악 그룹의 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2013인분 덕라이스(Duck Rice), 귀족요리인 오리통구이, 스트리트푸드인 오리꼬치구이와 오리 미니버거를 즉석에서 시식하는 행사도 있었다.